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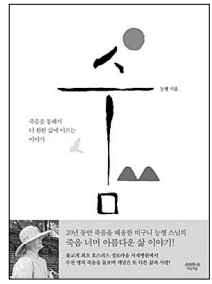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온다. 어찌 보면 죽음은 예의가 없다. 당신에게 언제 가겠다고 다정히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불시에 찾아와서 당신을 사뭇 당황스럽게 만든다.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학벌과 지위를 논하지 않는다. 또한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처럼 불공평하지 않다.” **〈능행스님의 숨 속에서〉**

“청정하게 장엄된 불국토는 청정한 대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나라의 수많은 불제자들은 항상 요묘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좌를 우러러보고 있다. 부처님은 사자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언제 어디에나 앉아 계시며, 한없는 방편으로써 보살행을 나타내 보이신다. 법성(法性)의 눈은 세간을 비추고, 그 몸은 널리 세간에 드러내시며, 시방의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일체의 더러움을 제거하신다.” **〈화엄경 이야기 중에서〉**

#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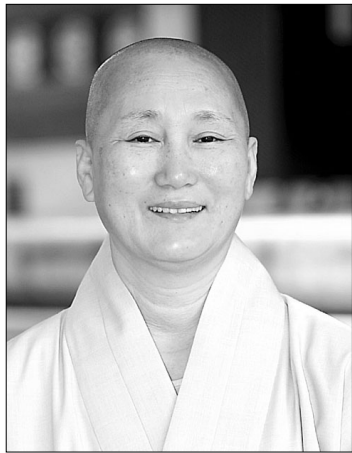
## 어떤 숨을 쉬며 살아갈 것인가?



**숨**  
능행 스님 지음  
마음의 숨 퍼냄  
1만 3800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언제나 공존한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 철학자들에게 죽음은 단골로 등장하는 화두요 소재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했고, 그에 관한 저서들 또한 쏟아졌다. 여기 20년 동안 실제 죽음의 현장에서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배운 한 비구니 능행 스님이 있다. 천주교 호스피스 사설서 죽음을 앞둔 한 비구니 스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를 건립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죽음을 총망라해,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죽음은 물론 삶에 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힐링’이라는 말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힐링’의 대중화는 ‘킬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방증인지도 모른다. 더 빨리 달리고자 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학생들은 취업에, 직장인들은 승진에 끊임없는 무한경쟁 속을 내뛰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죽음 바라보고 고찰 죽음에 대한 준비와 필요성 소개 20년간 죽음 배움하며 겪은 실화 숨을 고르게 쉰다는 인식함 중요**

잠시 숨 돌릴 틈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달려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론가 달려간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 숨과 숨 사이, 그리고 숨의 흔적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오늘날의 세태에 능행 스님은 ‘어떤 숨을 쉬며 살아갈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 책은 팍팍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숨을 위해 쓰여졌다. 턱에 닿을 듯 가쁘게 몰아쉬는 숨에는 화, 슬픔, 아픔, 외로움이, 새근새근 아이처럼 내쉬는 고운 숨에는 숭고함, 아름다움, 사랑이 존재한다. 어떤 숨을 쉬 것인가는 어떤 숨을 거둘 것인가와 다르지 않다. 거친 숨을 쉬며 살아낸 삶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힘겨운 숨을 맞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숨과 숨 사이를 느낄 여유도 숨의 진정한 가치도 잊은 채 숨을 쉬고 있다. 능행 스님은 매 순간 숨을 고르게 쉰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하루 숨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고 싶은 삶의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는다.

김주ыл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쉽게 풀어쓴 일본 불교학자의 <화엄경> 34품 이야기

### 화엄경 이야기

카미타 시게오 지음 | 장휘옥 옮김  
불교시대사 펴냄 | 2만 5천원



**〈화엄경〉은 아주 방대한 경전으로 원 제목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종국에서도 40권 본과 60권 본, 그리고 80권 본이 전해진다. 이렇게 많은 경전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전문 학자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불교학자(카미타 시게오) 선생께서 대중들이 쉽게 <화엄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풀어썼다. 34품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은 많은 번역서와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어느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절판시기가 아쉬워 재출간을 했다. <화엄경>에 관심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보고 수행한다면 더 없이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 공부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장

전체를 독송하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결점은 그 교학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전을 한 자, 한 자 주의 깊게 읽지 않는 것이다. 경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교리의 근원이 되는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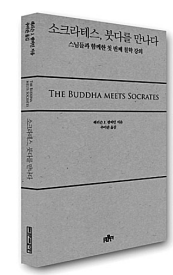
### 가르침 실천한 이들 행적 부가 끝부분 <입법계품>으로 마무리

이 책에서는 그들이 <화엄경>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각 품을 설명하기 전에 <화엄경>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행적을 부가시켜 놓았다. 특히 끝부분의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우리도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처럼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보자. 김주ыл 기자

## 붓다와 소크라테스 대화를 현재적 시점에서 상상

### 소크라테스, 붓다를 만나다

해리슨 J. 펨버턴 지음 | 추미란 옮김  
불광 펴냄 | 1만 3천원



**물질 · 외부 지향적인 서양의 정신과 내면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동양의 정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저자인 해리슨 J. 펨버턴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오고 다른 결실을 맺은 동 · 서양이 여전히 그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두 전통을 건설적으로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찾기 위해, 동 · 서양의 정신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며 집요하게 탐구한다.

수 있는지’를 묻고,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에 도전하며, 과학과 경험론의 유효성을 의심한다. 그리고 불교의 순환적인 시간관과 서양의 직선적인 시간관을 상호 비교한 다음, 동양과 서양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칸트, 헤겔,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상가들을 압축적이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들의 이론과 철학적 방법론과 심리를 시간 · 장소 · 배경에 상관없이 불교와 최대한 비교해, 어떻게든 동 · 서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나 개념화와 이성엔 진리가 있다는 서양적 사고와 이성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동양적 사고는 서로 접점을 찾기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한다.

서양에서는 이성적인 통찰이 끝까지 갈 때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동양에서는 이성

을 초월한 주객이 없는 그 어떤 상태가 깨달음이다. 서양의 깨달음으로는 동양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없고, 동양의 깨달음으로는 서양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없다. 동양과 서양은 애초부터 그 목표가 달랐고, 따라서 그 방법론이 달라졌고, 그러므로 현재의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와 정신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 서양철학 대가들 사상 다뤄 동 · 서양 철학 형식으로 만남 주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거역이 동 · 서양을 만나게 한다.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써 만남을 주선한다. 저자와 학생들의 철학 강의는 열린 마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토론도 가능했다. 서로에 대한 호의, 존중, 그리고 공감함으로 마침내 동 · 서양

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책의 마지막서 “이제 붓다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게 한 다음 자유로운 탐구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세. 그 속에서 그 둘은 자신만의 사고 유형에서 상대의 그것으로 옮겨가볼 것이고 서로 양립불가능함을 발견하네. 바로 그때, 그때 바로 그때, 이들은 따뜻하고 건전한 웃음 속에서 서로 만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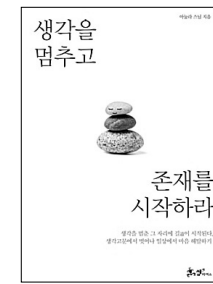
이 책은 서구화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꽤 유용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동안 동 · 서양의 정신세계는 매번 만날 듯하다가도 물이킬 수 없는 대분열을 일으켜왔다. 분명 그 둘은 사상적으로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없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성적 사고와 내면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붓다와 소크라테스의 만남을 바라볼 때 서로에게 호의와 존중을 품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움틀 것이다.

김주ыл 기자

## 생각 고문서 벗어나 일상서 마음 해탈하기

###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

아놀라 스님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5천원



**20년 가까이 근본불교 분향인 스리랑카 등지에서 수행하며 위빠사나를 가르쳐온 아놀라 스님의 신작 에세이집이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갈등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아놀라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타고 온 햇목이 아무리 고마워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스스로 그런 종이호랑이를 보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생각고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놀라 스님은 “생각은 살아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에 대한 정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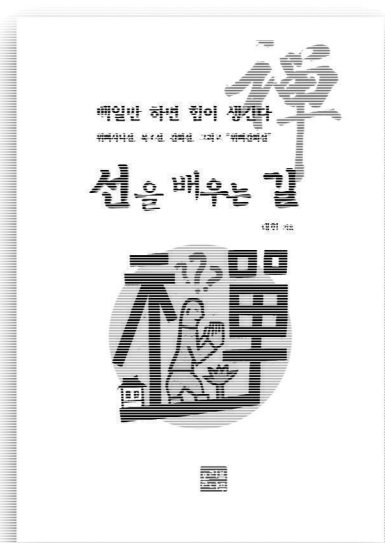
프린트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 호랑이를 만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그런 호랑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귀여운 강아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냥 텅 비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부 마음의 장난에 속지 않는 법과 2부 일상서 마음 해탈하기로 나누어

### 아놀라 스님이 알려주는 '마음 장난에 속지 않는 법'

져 있다. 짧지만 강렬한 52편의 에피소드를 한 편씩 읽다 보면 온갖 생각으로 시끄럽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명쾌해진다. 위로보다 지혜를 주는 글, 숨어 있는 행복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마음속의 불씨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주는 글들이다. 아놀라 스님은 일상서 마음 해탈을 경험하고 투명한 수재화처럼 보여준다. 김주ыл 기자

##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 대한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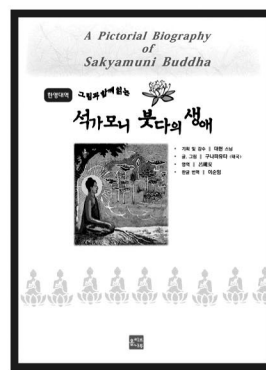
천근만근 짐을 버려놓은 듯한 흥분분분,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나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목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뭐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사나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배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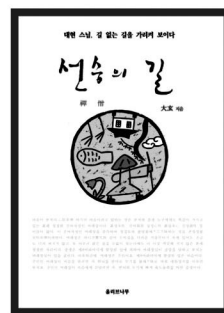
한영대역판

###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한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뭉개지는 구도예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쉼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땀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원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 선승의 길

\* 대한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한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함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읽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심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